

전시회



철, 건축을 만나다

유니온스틸, 건축가 이정훈의 'Endless Triangle with Luxteel' 전 일어

철이 달라졌다. 강하고 무박한 이미지로만 비춰지던 철이 건축과 만나 이 중적인 매력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

철은 자연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스스로 자연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쓰임과 가공에 따라 각각각색으로 변모하며 끊임없이 순환한다. 그만큼 다양한 물성을 지녔다는 의미다.

철강 그룹 동국제강의 계열사인 유니온스틸은 지난 10월 16일부터 27일까지 송원 아트센터에서 건축가와와의 콜라보레이션 전시회를 통해 철의 매력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작품을 선보였다. 바로 이정훈 소장 조오연건축이 디자인한 '엔들리스 트라이앵글 Endless Triangle'이다. 이는 두 층을 가로지르며 전시장 내부를 가득 메울 만큼 거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각도에 따라 어느 하나 똑같이 보이는 면이 없기 때문에 단일 구조물임에도 변하지 않다. 그래서 한참을 보아도 지루하지 않다. 기하학적 첫인상에 매료되어 호기심에 발걸음을 조금씩 옮기다 보면, 어느새 구조물 가까이 다가가 그 위에 덧입혀진 철을 마주하게 된다.

엔들리스 트라이앵글이 탄생하기까지는 석 달도 채 걸리지 않았다. 유니온스틸이 내외장재 브랜드 럭스틸을 출시한 것은 2011년이다. 이후 'B to D Brand to Designer', 즉, 제품의 잠재적인 고객인 디자이너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해 왔다. 2011년 당시에는 1차로 인테리어 디자이너

너들을 초청해 런칭쇼를 가졌고, 이번에는 더욱 실질적인 고객인 건축가들을 대상으로 2차 런칭쇼를 기획한 것이다. 하지만 건축계와 아무런 연이 없던 탓에 건축가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조차 어려워, 진행 자체가 어려웠다는 것이 유니온스틸 쪽의 설명이다. 그러던 중 우연히 신진 건축가 이정훈 소장을 만나게 됐다. 이 소장이 이 프로젝트를 의뢰받고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한 것은 올해 7월 중순경. 런칭쇼를 세 달여 정도 앞둔 시점이었다. 디자인과 제작, 그리고 설치까지 모든 것을 이 짧은 기간 동안 완벽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사실은 건축가에게 너무나 큰 부담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작품 특성상 구조적 측면의 조율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었기에 디자인 안을 확정하는 데만 근 두 달이 걸렸다. 유니온스틸 측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초기 모형은 비교적 단순한 관형에 가까웠지만, 구조 엔지니어와 기술적인 부분을 조율하면서 많은 부분이 수정돼 현재의 기하학적 형태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렇듯 디자인이 확정되기까지 수많은 과정을 거쳤고, 그렇다 보니 자연히 제작과 설치는 더욱 빠듯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전시 장소에도 제약이 많았다. 전시가 끝난 후에는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여주 페널 골프 클럽 광장으로 옮겨갈 계획이었기에 그 건물의 디자인은 물론, 구조물이 놓이게 될 주변 환경까지, 그야말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이 소장은 토로한다.



우아곡절의 과정과는 달리 이 소장이 영감을 받은 것은 찰나의 순간이었다. 첫 현장회의 때 방문한 전시장, 송원 아트센터 삼각형 계단 틈으로 떨어지는 빛을 마주하고는 마치 그것이 건물의 특징을 극명히 보여주듯 아주 특별했었다고 전한다. '분명 빛은 빛인데 매섭고 단단한 철처럼 공간을 가로지르는 강렬한 빛'. 바로 그때 그의 머리를 스치고 간 빛이 엔들리스 트라이앵글로 현실화된 것이 아닐까.

디폴터 이정훈은 후원사인 동국제강 그룹에서 생산되는 철의 물성을 작업과 접목해 사용하게 될 철의 속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엔들리스 트라이앵글에 사용된 부재는 크게 후판이라고 불리는 판재와 내외장재인 럭스틸로 나뉘는데, 이는 구조적 힘을 지니는 남성적 부재와 코팅 패턴에 따라서 외피의 느낌을 달리하는 여성적 부재라고 이해해도 좋을 듯하다. 똑같은 재료임에도 단지 가공방식과 표면 처리를 달리함으로써 다른 분위기의 부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조정을 맞추고, 이러한 두 가지의 상반된 물성을 삼각형의 형태와 결합한 것이다. 철이 가진 육중함과 유연함을 동시에 보여주어야 한 건축가의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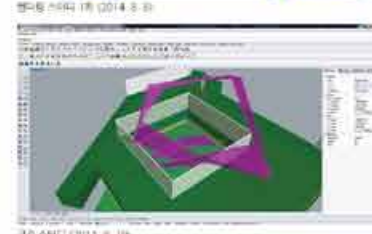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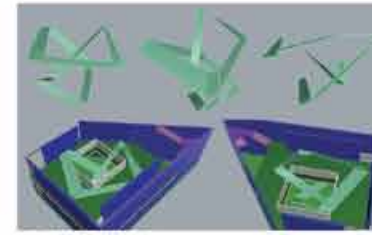
디자인과 제작에 이어 전시장에 15톤에 달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지하로 모든 자재를 들고, 그것들을 순서에 맞게 배열해서 조립하는 일은 그야말로 난관의 연속이었다. 오차를 줄이기 위해 전체 부재를 외부 현장에서 조립해보고 점할 오류를 최종적으로 확인했음에도, 각 부재가 벤딩모멘트와 휨모멘트의 응력으로 결합한 형태다 보니 전시장에서 이를 다시 조립하는 과정에서 응력으로 인한 부재 치수의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 이를 교정하는데 만해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또한, 구조적으로 피비우스 피의 형상을 한 부재가 서로 엮어리는 응력으로 전체적인 형태를 지지하는 구조인데, 특히 상부의 두 개의 구조점을 피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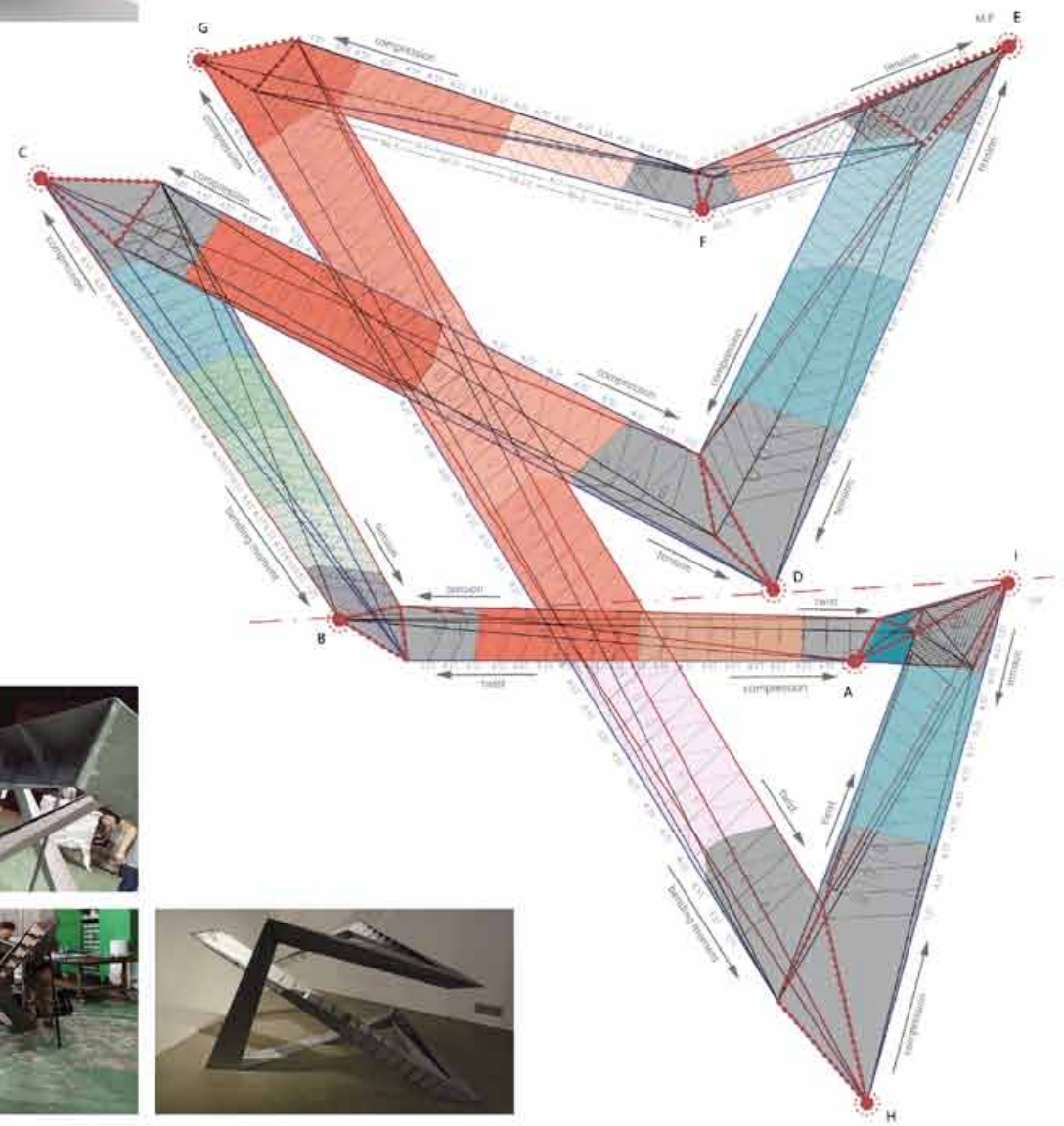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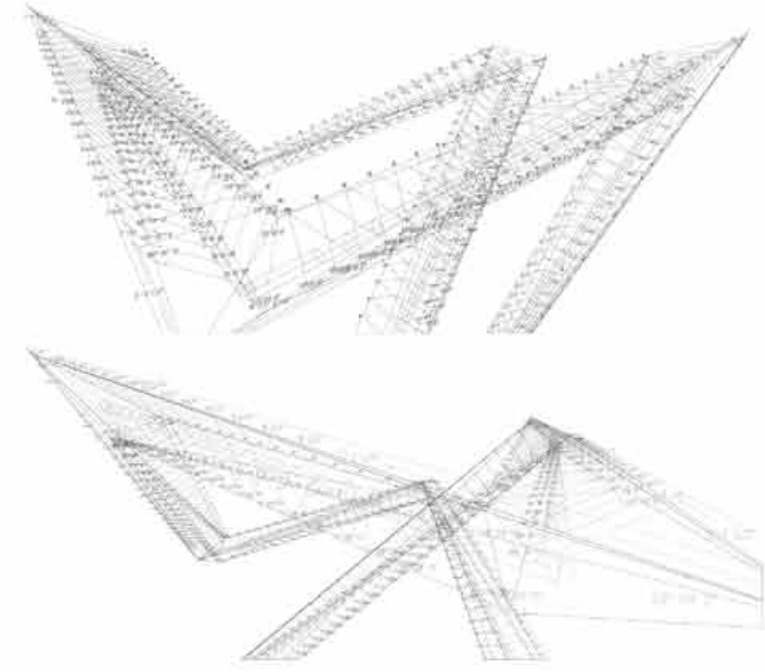
그날 저녁부터 열린 오프닝 행사에서 이소장을 만나 촬영 중인 유진(가운데)은 건축가 이정훈 소장



오프닝 행사에서 이소장을 만나 촬영 중인 유진(가운데)은 건축가 이정훈 소장



0110-0111 2014 8 25



건축가에게 철은 무엇보다 친근한 재료일 것이다. 철강 부재나 철근 등이 여러 부분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철을 하나의 객체로 다루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이 소장은 철을 다루는 여러 방법에 대한 실험을 통해 이 재료의 물성을 깊이 알게 됐다고 고백한다. 나아가, 기업과의 협업의 균형점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고 전했다.

외국의 경우 건축가와 재료 회사가 함께 재료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건축가 입장에서는 새로운 감성을 지닌 재료가 필요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재료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할 기회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듯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번과 같은 디자이너와 재료회사의 협업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종 실험과 조율 과정이 있었던 까닭에 이번 프로젝트에는 기존 예산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소비됐다. 기업 측의 이러한 대대적인 지원으로 대형 구조물을 제작한 것은 이례적이라 추후 계획에 대해서도 많은 이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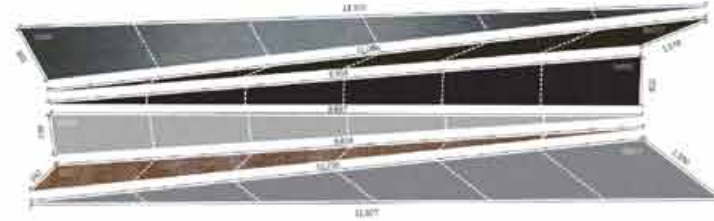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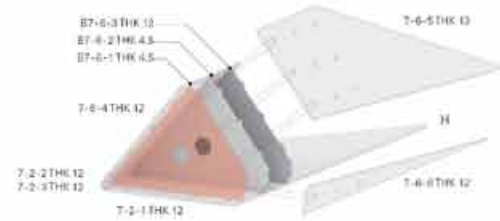
이목이 쏠린 상태다. 유니온스틸은 이듬해 초 동국제강과 합병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올해만큼 예산을 투자하기 어렵지만, 내년, 그리고 후년에도 신진 건축가를 선정해 렉스틸을 활용한 작품을 만들고 이를 전시할 기회를 꾸준히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작가 선정이나 작품 등은 모두 올해와 비슷한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업과 건축계의 의미 있는 협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축계가 타 분야와의 소통의 필요성을 절감해야 한다. 인식의 문제가 먼저 해결될 때 비로소 '더불어' 발전할 기회가 장이 마련될 것이며, 진정한 의미에서 '윈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전시는 건축계와 기업 양측에 이러한 필요성을 자각하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낸 듯하다. 앞으로 이런 작은 노력이 하나둘 쌓여 우리가 그리는 그 날이 속히 오길 기대해본다.

글 / 유승리 기자, 자료제공 / 조호건축, 사진 / 김동우

048 040 09 (2014. 9. 11)



049 040 10 (2014. 10. 3)



050 040 10 (2014. 10. 3)



051 040 10 (2014. 10. 3)



052 040 10 (2014. 10. 6)



053 040 10 (2014. 10. 10)



054 040 10 (2014. 10. 10)

